

한라포커스 'CFI 2030' 계획 어떻게 되고 있나 (중) 친환경 전기차

차 보급·관련 산업 육성 '지지부진'

2030년까지 37만대 목표... 현재 2만2148대 그쳐 전기차 폐배터리 이용하는 연관산업 육성도 부진 카센터 엔진 오일 교체나 펄크를 때우는 곳 전략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CFI 2030'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전기차 37만 700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을 시작했지만 이달 현재 도내 전기차는 2만2148대로 계획 대비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전기차는 2013년 159대에서 2014년 500대, 2015년 1506대, 2016년 2744대, 2017년 3961대, 2018년 6996대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3998대, 2020년 366대로 크게 감소했다.

도내 공용충전기는 지난달 말 현재 4359기(급속 1285기·완속 3074기)가 설치돼 있다.

전기차 보급이 부진한 것은 보조금 감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원받는 보조금은 2018년을 기점으로 1800만원에서 1400만원, 1320만원, 올해 1250만원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하는 연관산업 육성도 부진하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전기차 폐

배터리 자원순환체계를 목적으로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를 개소했다. 산업화센터는 현재 폐배터리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8개 제품을 만들어 실증을 하고 있으나 제품 상용화는 멀기만 한 실정이다.

현재 수거된 폐배터리는 178대이지만 2023년 3052대, 2024년 2416대, 2025년 4552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폐배터리 활용 제품 상용화에 한계를 보일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늘수록 도내 주유소와 카센터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 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100% 전환 시 도내 주유소 193곳 가운데 180곳이 폐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정비소는 92곳에서 21곳으로 줄고, 전문정비소는 기존 388곳 모두 폐업의 길에 들어선다. 연관 산업 업체 1곳당 피해 규모는 주유소 23억원, LPG 충전소 21억원, 종합정비소 6억9000만원, 전문정비소 1억

2000만원 등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업종 전환에 따른 폐업 보상을 지급하고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요원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정비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6일 중소기업육성기금 규칙 개정을 통한 융자 지원을 확대해 자동차종합정비업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주시내 한 카센터 대표는 "전기자동차 정비교육을 받아도 카센터에는 전기차 수리 장비를 설치할 수가 없다"며 "나중에는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나 펄크를 때우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전기차 보급확산으로 영향을 받는 연관산업 예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개조차 등 신사업영역 발굴 등 기술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창조적 여건 마련을 통한 상생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자생력 강화 및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정비수요 사전 대응으로 전기자동차 운행에 따른 불안감 해소 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비 날씨 속 조업 15일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어민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조업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규기자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300명 모집 제주시 180·서귀포시 120명... 21~25일 접수

제주시가 도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 180명을 모집한다.

제주시는 이달 21일부터 5일간 2021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지난 14일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제주시에 주소로 두고 있는 도내·외 대학 재(후)학생이다. 2021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학생은 이번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 30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최종 선발자를 결정한다. 추첨결과는 7월 1일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제주시 분청, 사업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돼 청사질서 유지, 환경정비, 민원안내, 현장조사 등 부서별 현안업무 지원하게 된다. 급여는 제주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1500원을 적용해 1일 8만1200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제주시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도 2021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자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간이며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 14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 재(후)학생이다.

모집 인원 120명 중 61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59명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선발예정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초과됐을 경우 오는 30일 오후 2시에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내달 12일부터 8월 6일까지 4주간 서귀포시 각 부서 및 읍면동에 배치돼 현장업무 및 행정업무보조 등을 맡게 된다. 보수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적용해(8만1200원/1일) 근무 종료 후 월급으로 지급받는다.

이윤형·백규기자

서귀포시 전신주 지중화 사업 '순항'

동홍동 주공5단지 진입로·한도로 이달 준공 중정로 내년 6월... 송악산 일대 신규 추진도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및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에 대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15일 현재 예산 32억2900만원을 투입해 4개 구간에 대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해 3개 구간과 올해 신규 1개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업 대상도 및 예산은 ▷동홍동 주공5단지 진입도로 220m 구간·5억8200만원 ▷성산읍 한도로 300m 구간·5억3700만원 ▷중정로 91번길 580m 구간·14억3000만원 ▷대정읍 송악산 인근 최남단해안로 500m 구

간·6억80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주공5단지 진입도로와 한도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완공 예정이다.

중정로 91번길은 지난해 추경에서 8억원을 확보하면서 내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남단해안로는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따내면서 앞으로 심의와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및 예산 확보 여부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도로 이용의 편리성 및 좋은 경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한도로는 전신주로 성산일

출봉과 오조리 바다 등을 가리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성산읍 일출로(880m)와 혁신도시 내 신동로(1400m) 구간에 대한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시행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산업자원부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한전(본사)에서 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한전과 지자체가 각 50% 부담해 한전에서는 도로굴착 및 관로 매설 등 공사를 시행하고, 포장복구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공사를 발주해 복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백규기자 haru@ihalla.com

양배추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 발동

출하 몰려 급락...3~4월 출하농가에 14억여원 지급

양배추 과잉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도내 양배추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령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배추에 대한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재배농가에 14억659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정부의 수급조절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당근·양배추·브로콜리를 대상으로 자율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위협 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 마련된 제주도만

의 농가 지원 정책이다.

도입 이후 당근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 이후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령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격안정관리제는 농산물의 최저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을 경우 발령되며, 발령 시 제주도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도입 이후 목표관리 기준가격 대비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된 적이 없었으나 올해 양배추 가격 하락세가 심해 처음으로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산 양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한 9만 4천톤으로 과잉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제주형 자조금 단체인 (사)제주양배추연합회를 중심으로 분산출하 등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상 유래 없는 한파 등으로 생육이 지연됐던 양배추 물량이 2월 이후에 집중 출하되고, 육지부 전남지역 양배추와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3, 4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게 됐다.

강대해기자 dhkana@ihalla.com

전액무료 (80% 취업률 달성)
전기실무자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 취업처 다수확보 ★

대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 재직자

교육기간
7월 개강 예정 - 7개월 과정
모집 근시일 마감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 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 배선, 약전, 소방 등

문의
064-749-3434

(주)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ewan.com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광초등학교 1층 (주)제원직업전문학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職 員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발키아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누수탐지·가색식 정전기식 수도매관 누출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시청 CGV 광안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